

‘전남 간부 사망’ 화물연대 투쟁 격화...장기화 우려

기자회견·대규모 집회...‘책임 규명될 때까지 투쟁’ 정의당 광주시당도 가세...경찰, 사고 낸 40대 체포

경남 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간부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 사측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와 집회 관리 책임, 대체운송을 둘러싼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 본부는 사고 이틀째인 21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 정촌면 CU 전

주물류센터에서 조합원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는 대체운송 강행과 현장 통제 실패가 겹쳐 발생한 것”이라며 “사측과 경찰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물류 운영을 우선시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경찰 대응과 관련해 “위험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오랜 기간 화물노동자 권익을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라며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안전장치와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순 사고 여부를 떠나 노동 현장의 안전 전범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과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고의성 여부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이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물류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운송 과정에서 안전 확보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들이받으면서 화물연대 전남 본부 간부가 숨지고, 또 다른 노조 관계자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

장에서는 노조와 경찰 간 대치가 격화되며 일부 충돌이 발생했고, 바리케이드와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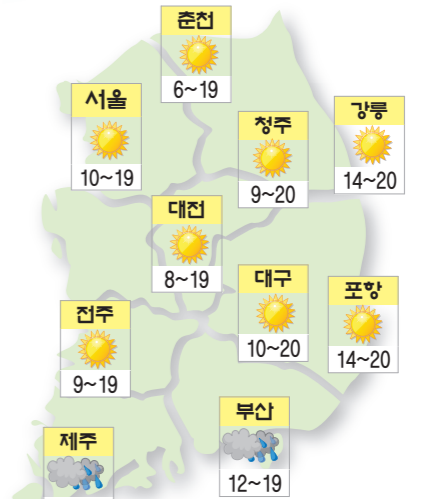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추가 집회와 행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사고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부터 배송 기사 처우 개선과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 진주를 비롯해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 출입구 봉쇄를 이어왔다. 17일부터는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까지 확대하면서 물류 차질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52 달맞이 09:26
 맑음 19:11 달맞이 ---:--



광주	11~18
목포	11~16
여수	11~17
순천	10~18
구례	10~18
광주	10~17
신도	11~16
흑산도	12~13
진남	9~17
진도	12~16

목포	밀물(고)	00:46 / 17:39
	썰물(저)	10:47 / 22:47
여수	밀물(고)	00:15 / 12:12
	썰물(저)	06:17 / ---:--

‘범죄조직 수익금 13억’ 자금 세탁 20대 실형

통장 등 범죄수익금 은닉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19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3억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표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암호화페로 환전한 뒤, 조직이 지정한 전자 지급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환전 금액의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매주 75만~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과 연동된 휴대 전화, 신분증 등 접근매체 14개를 넘겨받아 관리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해당 조직은 온라인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19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3억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표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암호화페로 환전한 뒤, 조직이 지정한 전자 지급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환전 금액의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매주 75만~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과 연동된 휴대 전화, 신분증 등 접근매체 14개를 넘겨받아 관리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에너지 절약 합니다 광주시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는 21일 5·18전남광장에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및 유관 기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정부가 제시한 12가지 절약 행동 실천을 홍보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출소 당일부터 범죄 행각 벌인 30대 ‘징역 5년’

찢질방서 여성 추행 혐의도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동 한 스포츠센터 앞에 놓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광주 북구 일대를 배회하며 감시가 소홀한 주거지와 사우나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특히 같은 해 10월16일 밤 광주 광산구의 한 찢질방에서는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4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된 당일 아침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동 한 스포츠센터 앞에 놓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광주 북구 일대를 배회하며 감시가 소홀한 주거지와 사우나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특히 같은 해 10월16일 밤 광주 광산구의 한 찢질방에서는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4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된 당일 아침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장애인도 시외버스 이용을”...이동권 보장 촉구

전남 장애인단체들, 광양시 등 4곳 상대 차별구제 소송

전남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고속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차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버스타와 터미널 운영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법원에 금고고속과 금호익스프레스, 광양시, 나주터미널 주식회사 등을 피고로 하는 ‘전남 지역 시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6명으로, 광주교범에서 심리되고 있는 ‘차별구제소송’을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전담까지 확대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앞서 금고고속과 광주시가 피고 가 된 해당 차별구제소송 1심에서는 원고 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소비 모델도 선보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용 가능한 버스가 없어 별도의 교통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 시 장애인 콜택시를 사전 예약하거나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장애인의 이동은 ‘손실’로 보는 인식 자체가 차별”이라며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만큼,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은 여전히 ‘기다려라’는 말만 듣고 있다”며 “자율주행차와 미래 교통이 논의되는 시대에 버스조차 탈 수 없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영진 기자 looks@

숙박업소서 마약...경찰 체포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가 경찰에 체포. 광주 북부경찰청은 21일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1g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남 A씨를 검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

현재까지 재판에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정확한 마약 구매 수법과 구매처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판매자 등 뒷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시교육청 공무직 채용 조리사 등 8개 직종 254명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조리사, 미화원, 통학실무사 등 8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21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 이번 공개채용은 254명 규모로, 이 중 △조리사 22명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29명 △특수학교(급) 돌봄교실강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등 4개 직종 56명은 필기와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한다.

또 △조리실무사 175명 △미화원 19명 △통학실무사 3명 △수련지도사 1명 등 4개 직종 198명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3~30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https://edurecruit.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종별 응시 자격요건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시험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인자 정책공정은 “이번 채용으로 필요요인이 적절히 충원돼 학교 현장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

“천원 맥주·치킨” 양동통맥축제 내일 개막

1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양동 시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4회 양동통맥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양동 전통시장 활성화협의체가 주관하고, 서구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 선한병원이 후원·협찬하는 양동통맥축제의 슬로건은 ‘다시 해봄(春)’이다.

‘통맥’은 전통시장과 통하다(通)와 100여년 시장 역사의 맥(脈)을 뜻한다. 동시에 통닭과 맥주의 줄임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축제 대표 콘텐츠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천원 맥주’, ‘통닭’이다.

방문객들은 천원 맥주와 통닭을 비롯해 닭튀김, 건어물, 흥어무침, 해물파전 등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준비·판매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1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양동 시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4회 양동통맥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양동 전통시장 활성화협의체가 주관하고, 서구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 선한병원이 후원·협찬하는 양동통맥축제의 슬로건은 ‘다시 해봄(春)’이다.

‘통맥’은 전통시장과 통하다(通)와 100여년 시장 역사의 맥(脈)을 뜻한다. 동시에 통닭과 맥주의 줄임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축제 대표 콘텐츠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천원 맥주’, ‘통닭’이다.

방문객들은 천원 맥주와 통닭을 비롯해 닭튀김, 건어물, 흥어무침, 해물파전 등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준비·판매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23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클래식과 재즈, 전자음악(EDM)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지며, 통맥 버스킹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상인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친한 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맥주잔, 음식 접시 등 대화용기를 확대할 예

25일까지 양동전통시장...노래자랑·버스킹 등 다채 현장 라이브커머스 송출...온·오프라인 상품 판매도

정이다.

이와 함께 소담스퀘어 광주와 연계한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축제 현장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시장 상인들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소비 모델도 선보인다.

동행축제(4월11~5월10일) 기간에 맞춰 소비 촉진 정책도 추진된다.

광주상생카드도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되는 경품 이벤트를 통해 총 600명에게 상생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교통공사도 24일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열어 당일 양동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도시철도 1회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김용욱 양동전통시장 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머물며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